



“내가 감귤밭 주인”… 사기 속출

최근 성산·표선 일대에서 중복 포전거래 사기 잇따라
제주시에선 인력 동원해 남의 밭에서 감귤 딴 사건도
최근 4년 감귤류 절도 49건… 경찰 “3월까지 특별단속”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감귤밭 현장 도난 사건을 비롯해 포전거래(일명 ‘밭떼기’)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농가와 상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주시 봉개동 소재 감귤밭에서 수확을 앞둔 감귤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다는 밭 주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밭에 남겨진 쓰레기 등을 수거해 분석, 50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에 A씨는 “포전거래한 밭인 줄 알고 인력 9명을 투입해 하루 동안 감귤을 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 감귤밭과 인접한 다른 밭을 포전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거래한 감귤밭은 약 1000㎡(330여평)로, 피해 감귤밭은 이보다 5배 이상 넓은 규모다. 해당 밭의 예상 수확량은 약 3t가량이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절도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과 성산을 일대에서는 특정 과수원에 대해 밭 주인 행세를 하면서 상인들에게 중복해 포전거래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성산을 주민 B씨는 “최근 성산을 삼달리와 신평리, 표선면 하천리 등 3개 마을에서 중복 포전거래가 이뤄졌다”며 “한 상인이 포전거래한 밭에 갔는데,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감귤을 수확하는 모습을 목격해 마찰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농촌 고령화로 대부분 과수원을 임대하면서 밭을 누가 관리하는지에 잘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상인들마저 우롱하는 ‘제주판 붕이 김선달’이나 다름없는 사기 행각”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피해 건수는 2021년 36건, 2022년 23건, 2023년 19건, 2024년 29건 등 모두 118건에 이른다. 작물별로는 감귤류가 49건(41.5%)으로 가장 많고 이어 브로콜리 9건, 마늘·양파 각 7건 등의 순이다. 월별 발생 건수는 3월 19건, 2·11월 각 14건, 1월 13건, 12월 12건 등으로 주로 겨울철에 집중됐다.

반면 이들 농산물 절도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2022년 60.9%, 2023년 42.1%, 2024년 34.5%로 다른 범죄 사건에 비해 검거율이 낮다. 사건 현장에 사람의 왕래가 적고 주변 CCTV도 없어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농산물 절도 예방 대책을 수립해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유관기관과 협업체 주요 농경지 주변 CCTV 등을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광고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노지온주 출하가격은 5kg 기준 1만5200원(도매시장 1만3000원, 직거래 1만8200원)이다. 이날 국내 9대 도매시장의 최고가는 6만원을 기록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각종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건축폐기물 등이 몰래 투기된 곳자왓.

꽃자왓사람들 제공

꽃자왓사람들 7~11월 제주꽃자왓 쓰레기 무단투기 모니터링 결과

“양심 실종… 법적 제재 강화·CCTV 확충 절실”

‘제주의 허파’ 꽃자왓이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꽃자왓사람들(상임대표 김보성)은 지난달 27일 워크숍 ‘쓰레기 무단투기로 본 제주 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꽃자왓 쓰레기 무단투기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꽃자왓사람들은 꽃자왓 내 무단투기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꽃자왓사람들은 2018년부터 꽃자왓 내 불법 훼손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모니터링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다. ▷조천읍(선흘리, 교래리, 와흘리, 북촌리) ▷구좌읍(덕천리, 동북리, 감녕리, 세화리) ▷성산읍(수산리) ▷애월읍(소

길리) ▷대정읍(동일리, 영락리, 무릉리, 신평리) ▷한림읍(금악리) ▷안덕면(동광리, 서광리, 덕수리, 화순리) ▷한경면(저지리, 청수리) 꽃자왓 지역에 대해 총 21회에 걸쳐 무단투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꽃자왓 내 무단투기가 이뤄지는 곳은 임도 개설지와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로, 도로 옆 함몰지, 농로 주변, 도로가 끊겨 차량 진입이 용이한 곳 등 다양했다.

폐기물들은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폐기물 ▷폐창호, 파이프, 시멘트, 폐목재, 스티로폼 등 건축용 폐기물 ▷페타이어 ▷폐농약병, 농업용 비닐, 썩은 농산물 등 농업 폐기물 ▷각종 음료병 등이 다수 확인됐다.

꽃자왓사람들은 “방치된 폐기물 위로 식물이 자라고 쓰레기에 고인

빗물이 썩은 곳도 있었다”며 “무단투기 경고 안내판이 있었음에도 안내판 아래 무단투기 현상이 발견되는 등 행정의 관리 부실이 무단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단투기 근본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법적 제재 강화 ▷상습투기 지역 CCTV 설치 및 무단투기 감시단 구성 ▷제주도 차원의 대책 마련 ▷관련 행정기관의 적극 대응과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꽃자왓사람들은 “꽃자왓은 제주의 허파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투수성이 높은 지역으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의 원천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꽃자왓 보전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유리기자

“제주 지하수는 도민 생명수이자 공공재” 시민사회단체, 도 ‘공수화 원칙’ 삭제 검토 강력 반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과정에서 사기업의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최근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지하수 관련 내용 중 도지사의 관리 의무를 담은 제377조와 제380조

등을 삭제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법 조항의 존치를 결정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의 지하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공공재”라며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명분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 자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년간 지켜온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유리기자

남방큰돌고래 사체 발견

제주 해안가에서 부패한 남방큰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지난달 2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2분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돌고래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돌고래 사체는 길이 255cm, 둘레 136cm로 무게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 조사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제주대학교 고래연구소 김병엽 교수는 “사후 30일 이상 경과한 남방큰돌고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남방큰돌고래와 상괘이 등 보호종 고래 사체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유리기자

한밤 중 동문시장 식당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새벽시간 동문시장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지난달 2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22분쯤 제주시 동문시장의 한 식당에서 ‘평’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식당 맞은편 점포의 영업주로 작업 중 화재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신고 9분여분만에 완전히 꺼졌다.

소방 확인 결과 냉동고 상부에서

강한 탄화 흔적이 발견됐고, 전원부 연결 배선에서 합선(단락) 흔적이 발견됐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식당 내부와 냉동고 등 5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賞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쿨고리 작업세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